사람 자격이 만사의 자격

(역대하 22:1~12)

1.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2.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3.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4.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람 자격이 만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람 자격이 만사의 자격'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자격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수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인면수심의 사건을 접하면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말도 하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은 이러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자격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만사에 필요한 자격의 충분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자격을 다양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가운데 해야 될 일의 특성에 따라서 일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숙련정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충분조건을 채우려합니다. 보통은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자격을 말을 합니다만 오늘 제목의 '사람 자격이 만사의 자격'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육십 세가 가까운 제가 지금부터 피아노를 쳐야 한다면 예전에 배웠던 체르니 30번과 100번을 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자격만 있으면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칠십 세 된 노인이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때에 무슨 사업을 벌이느냐고 만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사람의 자격만 있다면 사업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또한 스무 살 밖에 안 된 젊은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자격이 없다고 하겠지만,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격

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곧 사람의 자격입니다. 그 점이 보존되고 유지되지 않는다면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점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역방향을 취함으로서 몸이 무엇을 대하든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자격입니다. 그럴 때에 몸이 향하는 대상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뜻이 발사되고 그것에 대한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렇게 몸에 대해서 마음이 역방향을 취하는 사람의 자격이 갖추어지면 몸이 마주 대하는 과제와 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출신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스펙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연륜 지식 경험 능력 스펙 같은 단어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역방향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을 총구 삼아서 계획의 뜻을 발사시키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인간의 자격과 능력과 경험과 연륜과 지식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팔십 세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팔십 세가 된 모세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고 서라고 하시면 섰습니다. 장막을 치라고 하시면 쳤고 거두라 하시면 거두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을 때에, 모세의 몸이 만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들을 인도해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이후에 생긴 원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순방향을 띄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역방향으로 유지할 때에 그것이 곧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람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몸과 마음이 순방향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에 대해 죽고 몸에 대해서 역방향을 취할 때에 마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람 왕이 팔 년을 통치하고 사십 세에 죽게 되자 후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군대를 통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막내인 아하시야만을 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하시야가 왕 위에 오르지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악하게 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달랴의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하시야도 바알 숭배에 빠

지게 됩니다.
당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으로 남 왕국 유다의 아하시야 왕에게는 외삼촌이 됩니다. 아하시야 왕은 요람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배하고 요람 왕은 중상을 입고 이스르엘로 돌아가고 아하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람 왕의 병이 계속되자 아하시야는 요람의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때마침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예후가 아합 왕조를 배반해서 혁명을 일으키던 상황이었습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아합 왕조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병문안을 온 남 왕국의 아하시야 왕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들이 죽고 친정이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 왕국의 아달랴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손자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육 년간 다스립니다. 이 손자들 중에서 갓난아기 요아스가 고모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끝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사십이 세에 즉위해서 불과 일 년을 재위하고 북 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인 외삼촌 병문안을 갔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 마지막 20절에서 아하시야의 아버지인 여호람이 삼십이 세에 왕이 되었다가 팔 년 동안 재위하고 사십 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십 세에 죽었는데 곧 바로 즉위한 아들이 사십이 세 일수는 없는데 이 점이 이상합니다.
열왕기하 8:26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 하나를 잘못 옮기면 이십이 세가 사십이 세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 원본을 파피루스에 썼는데 낡아서 내용을 보존할 수가 없어서 서기관들이 베껴서 씁니다. 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가 생겼다고 주석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류로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성경의 필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옮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지함과 열성을 생각하면 쉽게 오기가 나올 만한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의 내용을 모른 채로 기록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아버지인 여호람이 죽은 나이를 사십 세로 기록해 놓고, 아들인 아하시야의 나이를 사십이 세로 기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필사자의 오기로 여기기 전에 이렇게 기록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생각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열왕기하에 기록된 대로 아하시야가 이십이 세에 왕이 된 것을 알면서도 역대기에 사십이 세로 기록한 것인데 그 실마리는 1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자 선왕의 유일한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예루살렘 주민이 나서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달랴 때문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면 에스라가 아하시야를 사십이 세로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십이 세 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 연륜과 경륜이 부족함으로 인해 아달랴가 실권을 쥐고 섭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달랴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이십이 세 이었던 아하시야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야 사망 이후에 손자들을 죽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남아있는 한 백성들이 결코 자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십이 세 이었던 아하시야에게 스무 살의 나이를 더 보태어 기록했습니다. 이 스무 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위 계승과 연관되어서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던 나이가 이십 세 이었습니다. 마치 역대기 처음에 족보를 통해서 깊고 깊은 신학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스무 살이라는 나이를 보탬으로서 솔로몬의 의미가 부여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무 살에 왕이 되어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듣는 마음은 곧 나의 판단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몸과 마음이 역방향을 취하고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무 살이 왕위를 감당하기에는 연륜과 경륜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분야에서 경륜이 필요한 왕의 자리에서 스무 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무 살이라도 몸과 마음을 역방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함으로서 사람의 자격을 갖춘다면 자연히 왕의 자격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무 살 뿐만 아니라 열다섯 살 정도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연륜과 경륜과 지식 따위가 왕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으로 마주 대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능력이 문제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대체 무엇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을 갖추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일그러진 마음이 계속 몸이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방향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는

관계없이 몸이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지혜와 계획이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에스라가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얼핏 오기로 보이는 기록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현관 높이를 120규빗(54m)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에서 기록한대로 말하자면 30규빗(9m)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성전에 대한 선민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에 살고 있든지 54미터 높이의 현관을 바라보며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함도 몸과 마음의 역방향 포지셔닝을 위함입니다. 상번제를 통해 양이 죽음을 기억하며 몸이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이 따라가려는 습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십이 세에 왕이 된 아하시야에게 스무 살의 나이를 더 보태면서 이 현장에 솔로몬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스무 살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순방향이 되려는 마음을 죽였듯이 사람의 자격을 갖추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미 스무 살 때에 나라의 평강을 약속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에 날마다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사람의 자격을 갖춤으로서 만사의 자격이 구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